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방안 - 광주광역시 마을미디어를 중심으로

강철수¹, 김덕모^{2*}

¹고구려대학교 평생교육상담과 교수, ²호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Activation of Maeul Community Media - Analysis of Gwangju Metropolitan Community Media

Chul-Soo Kang¹, Dug-Mo Kim^{2*}

¹Professor, Dept. of counsel & lifelong education, Koguryeo College

²Professor, Dept. of Journalism & Broadcasting, Honam University

요 약 마을공동체미디어는 마을의 구성 복원과 마을 주민의 소통을 위해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운영되는 공동체미디어이다. 공동체내의 소통구조 활성화와 마을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역할로써 마을 미디어에 대한 학계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는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마을미디어의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운영주체들의 성격과 활동의 특성 등을 통해서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으로는 광주광역시 마을미디어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마을미디어 활동가, 종사자,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통해서 마을미디어의 특성과 문제점 및 애로점과 활성화 방안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광주광역시 마을미디어들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하였고 주민참여를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공간 확보는 활동에 영향을 미쳤다. 활성화 방안으로는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지적하였고 정책적인 관심과 활동가에 대한 제작실비의 지원을 제기하였다.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도 제시하였다.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심의 전환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주제어 : 광주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 현황 및 실태, 활성화 방안, 행정적·제도적 지원방안, 정책적 관심

Abstract It requires administrative supporting & Policies Aids on Maeul Community Media that confronted with reconstruction of community & interaction of residence. There are increased of community media research. This study examines the meanings of participants, the role of participants & volunteer, characteristic of community media, enlargement of residence, problems and activation of community media also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of participant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first it will be enforced administrative supporting & policies aids on Maeul Community Media. Secondly, suggests supporting of a municipal ordinance of Council. Thirdly, facilitate the education of program contents and management of community media. Finally, Supports of production costs.

Key Words : Gwanju Maeul Community Media, Administrative & legal supporting, Policies Aid supporting of a municipal ordinance of Council, Support of production costs .

*Corresponding Author : Dug-Mo Kim(kdmprof@honam.ac.kr)

Received May 15, 2019

Accepted July 20, 2019

Revised June 26, 2019

Published July 28, 2019

1. 문제 제기 및 연구목적

마을미디어에 대한 관심은 공동체미디어, 시민미디어, 대안미디어 등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1]. 공동체미디어는 보다 포괄적인 용어로서 다양한 지역공동체나 소수자 집단의 미디어 활동 등을 망라하는 의미를 지닌다[2].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에 따르면 “마을미디어는 주민이 소유하고 주민이 함께 운영하는 미디어로, 소통, 문화, 여가, 만남의 장이자 작은 언론의 역할을 하는 미디어이며, 다양한 미디어가 매체가 되어 주민들이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마을소통 공동체”다[3].

공동체내의 소통구조 활성화와 마을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마을미디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단초를 파악하기 위해 마을미디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마을미디어가 가지는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 때문에 현장에서의 실천 활동에 관한 학계의 연구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3]. 따라서 마을미디어의 운영을 파악하고 마을공동체미디어 발전을 위한 활성화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은 의미가 각별하다.

공동체 복원과 발전을 위해 마을공동체미디어에 참여하는 활동가들은 누구이며 그들의 실천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가? 또한 이처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마을미디어 발전을 위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를 탐색해 보는 것은 자못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마을미디어의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운영주체들의 성격, 운영활동의 특성 등을 살펴보고 마을공동체 발전을 위한 마을 미디어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기존 연구 동향

2.1 실천 활동과 실천주체들에 대한 질적 연구

공동체미디어를 연구하는 많은 연구자들은 공동체미디어를 하나로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에 생각을 함께해 왔다[3]. 공동체미디어는 어느 하나의 개념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모호하고 복잡한 단어 구성체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체미디어가 참여하는 주체들이 위치하고 있는 정치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주체들의 기대 가치와 공동체의 요구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작동해 왔기 때문이다[3,4].

이희량·김희영[3]은 한국 사회의 새로운 공동체미디어 운동의 흐름이라 할 수 있는 마을미디어의 실천을 규명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에서 마을미디어 연구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는 마을미디어 활동에 대한 질적 연구로 채영길, 김용찬, 백영민, 김예란, 김유정[5]은 마을미디어 참여자들이 공간과 관계의 공유 공동체로서 마을공동체를 규정하고 있으며, 서로 유사한 노스탤지어적 감성을 공유하며 기존의 마을공간과 관계를 변화시키려는 미디어로서 마을미디어를 규정하고 있다고 분석한다[3]. 또한 김예란·김용찬·채영길·백영민·김유정[6]의 연구들이 있다.

두 번째, 개별 마을미디어 참여 주체들의 실천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서 다중의 다층적이고 정동적인 실천의 흐름에 주목하였다[3]. 창신동 라디오‘담’의 여성노동자들의 참여와 실천을 분석한 강진숙·이은비[7]는 마을라디오[8]를 통해서 여성노동자들이 사회와 소통하고 공동의 유희성을 창출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강진숙·소유석[9]은 동작FM의 제작구조 및 인터넷댓글 등의 물적 토대와 지역주민들의 참여사례를 분석하여 수평적 네트워크 속에서의 다중지성 형성과 다중의 실천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반명진·김영찬[10]의 지역주민들의 상호 관계에 관한 마포FM의 연구 등이 있다.

이희량·김희영은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을 바탕으로 마을미디어 활동의 실천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여 마을미디어 실천결과와 ‘참여자의 확대와 성장’, ‘마을 공론장 활성화’, ‘마을미디어 지향성 확립’ 등을 결과로 도출하였다[3]. 정용복[11]의 ‘마을공동체미디어 생산자의 미디어 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제주지역 공동체미디어의 생산과 과제,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에서 제주지역 마을공동체미디어 참여자들이 생산과정에서 경험하는 가치를 조망한 연구들이 속한다.

2.2 공동체미디어 연구경향에 대한 메타분석

강진숙[2]은 공동체미디어관련 연구들이 처음 등장한 2001년부터 2016년까지 관련 선행연구들을 주제, 방법 그리고 쟁점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 정리하였다. 즉 강진숙은 2001년 이후 2016년 11월까지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의 학술등재지 논문 총 53편을 분석하였다. 강진숙의 분석결과, 우선 공동체미디어 학술담론을 크게 네 가지 주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온라인 공동체(커뮤니티), 지역/시민공동체, 공동체미디어, 그리고 소수자 커뮤니

티 등이다. 이 중에서도 온라인 공동체나 커뮤니티 연구가 다른 주제 유형에 비해 큰 비중을 나타내는 한편, 이주민 미디어와 다중의 공동체 라디오 참여 등에 대한 소수자들의 능동적 미디어 활동에 대한 학술담론들이 최근 5년 이내의 기간에 활발히 개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2].

두 번째로, 공동체미디어 학술담론의 연구방법론은 자료수집과 분석방법의 측면에서 유형별 차이와 특징을 나타냈다. 온라인 공동체나 커뮤니티 주제 유형에서는 질적 연구에 비해 양적 연구의 방법론이 주로 사용되었다면, 지역/시민공동체나 이주민 미디어, 그리고 소수자 커뮤니티 담론들에는 주로 질적 연구방법론이 적용되었다[2,12]

세 번째, 공동체미디어 학술담론의 쟁점 및 과제는 공동체미디어의 기술적 속성과 연결망의 낙관적 가능성에 기대는 것을 넘어서서 이용자의 행위와 실천의 가능성에 더 밀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온라인 공동체미디어의 기술적 속성과 구성원이라는 집단적 정체성에 대한 진단을 넘어서서 더욱 분화된 공동체 구성원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공동체미디어의 가능성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2].

2.3 문화 정치적 함의에 대한 연구

공동체미디어의 문화 정치적 함의에 대한 연구들은 마을미디어가 개인들이 갖는 다양한 차이와 특이성이 원인이 되어 공동체미디어를 구성하고 실천행위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집단적 실천 주체들이 모인 집합으로써 늘 역동적인 행위들을 이끌어낼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분석한다. 마을미디어는 “다중의 네트워크로서 미디어를 통한 집단적 실천행위를 이끌고 일종의 대항권력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문화 정치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13]. 채영길[14]은 ‘마을미디어의 참여와 정치문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연구에서 공동체미디어가 민주주의적 공동체 구성과 운영에 기여하는 바가 무엇이며 이를 위한 전제와 조건들이 어떠한지 해야 하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논의의 지점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채영길은 공동체미디어의 다차원적인 방식으로 실천되고 있었으며, 제한적인 정치성을 참여 자체에 내재한 권력이 만들어내는 위계에 기인하는 경향이 크다고 하였다. 공동체미디어는 조직화하는 과정에 누가 참여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게 한다[14]. 제작과 유통과정에서 분배하는 주체의 역할을 가능케 하는 미디어라는 점과 평등성을 준거로 하는 참여의 정치성이 공동체 미디어의 소통 동기 및 소통방식과 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14]고 하였다.

장시연·채영길[15]은 ‘공동체미디어의 참여자 네트워크 특성과 의미 분석: 마포FM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참여자네트워크를 커뮤니티미디어에 참여하는 활동가들의 연결망으로 정의하고 활동가들의 관계망의 밀도와 중심성(연결 근접 매개)의 경향을 분석하여 참여자네트워크는 커뮤니티미디어의 생산과 운영의 특성을 반영하며 커뮤니티미디어가 기존의 매스미디어와 다른 성격과 역할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를 제공해 준다. 장시연·채영길[15]은 마포FM 커뮤니티미디어는 제한적인 개방성과 참여 그리고 소수에 집중된 위계적 관계와 소통구조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다. 향후 참여자 네트워크분석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관계망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커뮤니티미디어 연구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체계적인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보았다[14].

강진숙·이은비[13]의 ‘서울마을미디어’의 다중실천과 문화 정치적 의미에 관한 연구에서는 마을미디어에 참여하고 있는 활동가들의 구체적인 실천양상과 교류과정들을 질적 심층인터뷰를 통해 사람들의 실천행위와 그 과정에서 생산되는 공동의 재화형태에 대해 관찰하면서 미디어참여 활동이 갖는 문화 정치적 함의를 살펴보았다.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3.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마을미디어의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운영주체들의 성격, 운영활동의 특성 등을 살펴보고 마을공동체 발전을 위한 마을미디어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연구문제1 : 광주광역시 마을미디어 운영현황과 실태, 운영주체들의 마을미디어 활동계기 및 이유는 무엇인가?

연구문제2 : 마을미디어 운영의 주요한 특성과 문제점은 무엇인가?

연구문제3 : 마을공동체 발전을 위한 마을미디어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3.2 연구방법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방안연구를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1) 문헌연구를 통하여 마을미디어 관련 연구의 동향과 현황을 분석 이론적 토대로 정리하였고 (2) 광주

광역시에서 활동 중인 15개 마을미디어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마을 미디어 활동가(종사자),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마을미디어 활동의 이유(동기/목적)와 특성 및 문제점(에로사항)과 활성화방안들에 대해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참여자에게 대한 심층인터뷰방식은 반개방적인 인터뷰방식으로 주요내용은 마을미디어 활동의 연대기, 사업내용 및 에로사항과 활성화방안 등을 중심으로 활동방식과 활동의 이유, 해결해야 할 과제 및 문제점(에로사항), 마을미디어 활성화 방안을 파악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가급적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인터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접 마을미디어 현장을 방문, 인터뷰를 진행함으로써 인터뷰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실제 심층 인터뷰는 2019년 1월14일부터 2019년 1월31일까지 2주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3.3 연구대상

공동체마을미디어에 대한 활동을 분석하기 위해서 광주광역시 마을미디어공모사업으로 선정된 5개구의 5개 마을미디어와 자치구 마을미디어 공모사업을 진행한 서구지역 1개 광산구지역 9개 마을미디어 등 총 15개의 마을미디어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광주광역시 연구대상 마을미디어는 다음과 같다.

1.동구-플리마켓협동조합, 동구아트매거진, 2.서구-프랜리, 할매할멈뉴스데스크, 3. 금호2동 주민자치회, 호동이네 이야기 4.남구-봉선2동주민자치위원회, 마을을 잇는 봉다리마을방송국, 5. 북구-두암종합사회복지관, 삼정승고을희망매아리 마을방송'방송은 희망을 신고', 6.광산구-이공협동조합, 열려라,이공TV, 7. 광산마을라디오 팟빵, 8. 영천주공10단지, 달아실라디오, 9. 수완동주민자치위원회, 수완라디오시그널, 10. 행랑채(어룡동), 행랑채마을라디오, 11. 수완호반1차A, 우리 마을미디어 소나기, 12. 신창마을교육발전소, 신창라디오풍당, 13. 더불어락노인복지관, 에헤라디오모樂모樂 큐, 14. 고려인마을, 고려FM나눔방송, 15. 광주시민센터, 광주시민센터팟캐스트 등이다.

4. 연구결과 및 논의

4.1 조사대상 마을미디어의 일반적 현황

광주광역시 마을미디어의 주요 조사결과는 Table 1

과 같다. 활발히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마을미디어가 있는 반면 공모사업 종료와 함께 마을 미디어 활동도 종료된 곳도 있었다. 15개 조사대상중에서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곳은 8개로 50%이상에서 마을미디어 활동이 확인되었고 연락이 되지 않은 곳도 있어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광주광역시에서 마을미디어 활동이 지속되고 있는 곳은 '광산마을라디오 팟빵', '달아실라디오', '고려FM 나눔방송', '팟 캐스트 광주시민방송', '봉다리마을방송', '이공TV', '수완라디오 시그널', '할매할멈뉴스데스크', 마을신문인 '호동이네 이야기'가 활동을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신창라디오 풍당'과 '에헤라디오,모樂모樂 큐', 마을매거진인 '동구아트매거진'은 공모사업이 종료된 이후 2019년 1월 사업진행을 하고 있지 않았다.

4.2 연구문제1: 마을미디어 운영 실태와 운영주체들의 활동계기 및 이유에 대한 분석

마을미디어를 운영하는 연령층은 40대여성이 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0대후반 20대남성이 4명, 30대여성 3명, 50대는 여성, 남성 각 2명이며, 40대 남성 1명이었다.

상근운영자는 대표이외에 1인 또는 2인 정도인 경우가 대부분(11개중 4개)이었고, 실무책임자만 상근하는 경우도 있었다.

제작참여자는 평균적으로 10여명으로 '광산마을라디오 팟빵' 7명, '달아실라디오' 3개팀 10여명, '고려FM 나눔방송' 총 16명, '팟캐스트 광주시민방송' 총 9명, '봉다리마을방송' 총 6명, '이공TV' 10명, '수완라디오 시그널' 10여명, '할매할멈뉴스데스크' 16명, 마을신문인 '호동이네 이야기' 7~8명, '신창라디오 풍당' 7~8명, 마을매거진인 '동구아트매거진' 17명이었다.

마을미디어 운영주체들의 마을미디어 활동 계기 및 이유는 첫째, 소통하기 위해서가 5개 매체(놀이와 마을살이의 즐거움 1개사 포함)로 가장 많았다.

"주민들과 소통하고자하였다. 외부사람들과 소통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장을 만들고 마을 플랫폼을 홍보해서 참여할 수 있을 기회라는 점에서 미디어로 접근하기 위해서 2015년 공모사업을 통해서 활동을 시작했죠."('광산마을라디오 팟빵' 매**)

"2017년 소통을 위한 매체로서 라디오에 관심을 가지고 매체로서 접근하게 되었고..."(수완라디오 시그널, 김**)

"광주시민센터의 회원들과 주민들의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했죠~ 초창기에는 단체소식지 '열린광산'을 만들어서 집집마다 붙이고 다니다~ 찾아가는 팟

Table 1. Gwangju Maeul Community Media Findings

ID	age	gender	media	begin	channel (format)	program participant	decision making system	content	space
1	54	F	Gwangsan maeul radio 'pat bbang'	2015	pad cast (internet radio)	7	all member-talk messenger	3 program in 2week (283 in 4 year)	residence center caffe 2F
	52	F							
	49	F							
2	54	M	suwan radio signal	2017	pad cast radio, event etc.	about 10	General meeting	event program	None
3	47	M	Darshil radio	2015	a part of community radio programming, pad cast	3 team (about 10)	team meeting	3 program in a week	public center
	48	F							
4	43	F	Gwangju citizen center pad cast	2017	SNS Facebook	9	all member planning meeting	1 times monthly	own space
5	43	F	shinchang Meddle school radio 'pondang'	2016	free term	7~8	member meeting	2~3 in 10 month	None
6	26	M	korea FM radio share broadcasting	2016. thanks giving	internet broadcast	16	team meeting	12 programs in 24 Hours	own space
7	19	M	Bondari maeul station	2018	pad cast, youtube	6	weekly meeting	about 30 upload	own space
	19	M							
	19	M							
8	59	M	Hodong's story (newspaper)	2015	town paper	7~8	panning meeting, General meeting	1 press in a month	own space
9	30	F	east district art magazine	2018.10	magazine	17(staff3, youth 14)	General meeting	totally 2 press	own space
10	39	F	20 TV	2017.3	youtube	10	leader & participant meeting	total 10 programs	own space
11	30	F	grandpa, grandma news desk		town informed, visual	16(youth 4, senior 12)	youth & senior meeting	quarterly town informed, 2 visual in a year	own space

캐스트로 지부를 찾아가서 팟 캐스트 녹음과 방송을 하는 방식으로 팟 캐스트, 밴드, 카페 등을 거쳐 SNS Facebook으로 주민과의 접촉면을 확대하기 위해 마을 미디어로 접근했죠.”(‘팟 캐스트 광주시민방송’ 임**)

“발산마을에 청년들이 입주하게 되면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생활 문화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기 위해 시작했죠.”(‘할매할범뉴스데스크’ 송**) 어린이 어르신까지 함께하는 매개체로서 남녀노소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 재미있고 놀이 할 수 있는 (중략) 마을살이의 즐거움을 찾고 정보를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했죠.”(‘달아실라디오’ 정**)

두 번째는 마을 공동체 홍보를 주된 이유로 꼽은 매체가 3개사로 나타났다.

“송정동에서 청년들의 마을살이를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 일터, 샵터, 놀이터를 만드는 일로~ 송정동에 1913송정역 시장이 유명한데 그 외에도 송정오일장, 매일장, 다문화음식문화 등을 알리고 싶어 시작하게 됐죠.”(‘이공TV’ 이**)

“주민참여자치 활동이 필요하게 되어 지역 먹자골목 상권과 아파트공동체의 참여, 어린이기차단, 주부기차단 등을 시작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마을 신문을 창간하게

되었습니다.”(‘호동이네 이야기’ 박**).

“청년 아티스트들을 알리고 동네 맛집, 카페 등을 알려주고~ 공모사업으로 마을의 새로운 공간을 공유해 주는 목표도 했죠.”(‘동구아트매거진’ 유**)

셋째, 교육을 위한 접근과 대안미디어, 이주민을 위한 목적을 이유로 제시하였다.

“마을교육공동체 활동하는 분들 중에 라디오 활동에 관심을 갖고 초등학교 운영위를 중심으로 마을교육공동체인 신창교육발전소를 만들어 학부모들이 참여하여 마을 교육공동체와 연계하여 아이들의 교육문제, 놀이, 진로, 경험 확대하자~.”(‘신창라디오 풍당’ 김**)

“고2 때 공동체라디오 방송의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대안언론의 방향으로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면서 마을 미디어설립에 참여하게 되었고친구에게 말해서~ 마을정보와 마이크를 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고 마을미디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봉다리마을방송’ 오**)

“고려FM 나눔방송’은 광주시청차미디어센터가 추천만하는 2016년 특별방송으로 시작하게 되어 10여년 된 국내 이주자 및 근로자 불평사항을 소통하고 이주민들을 위한 인터넷 신문 기사나 각 언론사와 협력하고 있고 인터넷 방송으로 되었습니다.”(고려FM나눔방송 이**)

4.3 연구문제 2: 마을미디어 운영의 주요한 특성과 문제점은 무엇인가? 에 대한 분석

4.3.1 다양한 매체활용

광주광역시 마을미디어가 사용하는 매체들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팟캐스트를 이용한 방법이 4건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었으며 이들이 활용한 매체의 형태는 팟캐스트와 youtube, 공동체라디오 방송의 편성일부로 송출하는 방식, 소규모 오프라인 무대행사, 축제 시 특별행사, 마을신문 발간, 마을잡지발간, 페이스 북 페이지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매체들의 운영방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광산마을라디오 팟빵'은 팟 캐스트 통한 전달을 주로하고 마을행사, 오픈 토크쇼 등을 축제행사의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방식이었다. '달아실라디오'는 3개의 제작팀이 30분에서 1시간 분량으로 제작하여 생방송이나 녹음편집한 다음 공동체라디오인 광주시민방송에 프로그램을 전달하여 공동체라디오 방송의 편성에 포함하여 방송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으며 이후 이 프로그램을 팟 캐스트에 업로드하고 있었다. '고려FM 나눔방송'은 24시간 인터넷 방송으로 송출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3시간 한국어 방송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러시아어로 방송하여 고려인 2,3세가 주로 대상이었다.

'팟캐스트광주시민방송'은 SNS Facebook을 활용하고 또한 이를 제작과정과 함께 페이스북 페이지를 활용하여 업로드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봉다리마을 방송'은 팟 캐스트와 youtube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업로드 하는 형태였다. '이공TV'는 youtube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업로드 하는 방식이며 '수완라디오 시그널'은 마을행사, 축제행사시 오프라인으로 좌담회, 토크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형태이고 마을신문인 '호동이네 이야기'는 월 1회 평균 8면으로 인쇄하여 5,000부를 발행하였다. 마을매거진인 '동구아트매거진'은 총2회 발행으로 평균 30페이지 분량으로 5,000부를 발간한 마을잡지형태였다. '할매할뎀뉴스데스크'는 분기별 마을소식지를 제작하고 1년 1~2개의 마을 영상을 제작하였다.

4.3.2 공간 확보의 문제

마을미디어들의 운영에서 공간 확보의 문제가 나타났다. 공간 확보와 사용의 문제는 마을미디어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독자적인 공간을 확보하고 활동하는 마을미디어활동은 상대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활동공간의 문제에 처한 마을미디어의 경우에는

지속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신창라디오 풍당'의 경우는 활동가들의 공간 확보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하며, 참여자들이 지속하고자 했으나 공간이 확보되지 못해 공모사업 종료와 함께 활동참여자들의 동력을 지속하지 못했다는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처음에는 교육에 참여하는 분이 20여분정도 되었는데 같이 모일 장소가 없었죠~ 카페에 모여서 회의하고 다른 단체 공간에 가서 작업하고 모이다보니 동력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웠죠, 공간이 있었으면, 참 들 좋아하셨으니까 지속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신창라디오 풍당'김**)

다음, 광주지역의 마을미디어에서 활용하는 장비나 시스템 구축에서도 마을미디어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자체 부스나 방송시스템을 갖춘 곳으로는 '광산마을라디오 팟빵', '달아실라디오', '고려FM 나눔방송', '봉다리마을 방송'이었으며 마이크, Mixer, Non-linear장비를 갖추고 있었다. '이공TV', '수완라디오 시그널' 마을신문인 '호동이네 이야기', 마을매거진인 '동구아트매거진'은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있었다.

4.3.3 재원확보 상황

마을미디어의 재원확보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마을미디어들은 공모사업을 통한 재원확보를 하고 있었으며 2개 매체에서는 회원들의 회비를 일부재원으로 활용하였고 후원금을 활용하는 경우와 자부담을 하는 경우 및 재능기부 등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중 공모사업을 벗어나 자체적으로 마을미디어를 운영하려는 움직임을 가진 매체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활동은 활동가들의 재능기부에 의한 자원봉사 활동 등으로 운영하고 공모사업을 통한 재원확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태였다.

"2015년 공모사업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공모사업을 하지 않고 활동가들의 재능기부로 유지하고 있었으며 활동가들이 마을미디어교육활동을 통한 강사비 등을 활동에 활용하죠."('광산마을라디오 팟빵' 배**).

"아파트공모사업으로 시작하여 재능기부와 입주해 있는 야호센터내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확보와 회원들의 월 회비 10,000원을 거출해서 일부비용을 하고 있습니다."('달아실라디오' 정**)

"'봉다리마을방송'은 "공모사업을 통한 재원 마련을 하고 있었으며, 참여자들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봉다리마을방송' 오**)

"공모사업비를 통해서 처음 장비구입 등을 하였고 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원봉사로 이루어지고 있죠~."('수완라디오 시그널' 김**)

"공모사업으로 처음 재원을 확보했죠~ 3년 운영을 해 왔

고 재원이 문제죠, 무명 독지가가 2~300만원 기부해서 보탬이 되기도 했고 4년차인 현재 재원마련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을신문 이름을 계속유지하기 위한 마을잡지형태나 USB제작 등을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중이죠~.”(‘호동이네 이야기’ 박**)

일부 회비를 활용하는 마을미디어와 자부담 후원을 통한 재원확보를 하고 있는 실태는 다음과 같다.

“공모사업비와 광주시민센터의 회원들의 회비를 전체 6개 센터를 운영하면서 미디어팀을 운영하는 일부로 활용하고 자원봉사와 재능기부로 활동하고 있죠.”(‘팟 캐스트 광주시민방송’ 임**)

“공모사업비와 회원들의 월 회비로 5,000원~10,000원 등으로 활동 했죠~.”(‘신창라디오 풍당’ 김**)

“2017년 자부담 제작, 2018년 광주시마을미디어지원사업, 시청자미디어센터 마을미디어지원사업 등 공모사업을 통한 재원마련~.”(이공TV,이**)

“고려FM 나눔방송은 광주시 소규모 방송 지원사업과 고려인마을 후원금 등으로 충당하고 자원봉사활동과 재능기부로 이루지고 있고, 3명의 한국인 아나운서가 자원봉사하고 13명의 고려인 2, 3세으로 구성되어 있죠.”(고려FM나눔방송 이**).

4.3.4 생산 콘텐츠 및 편성현황

광주광역시마을미디어의 콘텐츠 및 편성현황을 보면, 정규적인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지 않았다. 예외적으로 ‘고려FM나눔방송’은 12개의프로그램을 정규 편성하여 하루 24H 편성을 하고 같은 소재의 내용도 듣는 사람들을 위해 쉬운 형태, 중급, 일상적 수준 등으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광산마을라디오 팟빵’은 정규 편성표는 없었지만 2주 3개 프로그램을 팟 캐스트로 올리는 정도로 4년차인 2019년 1월까지 283회의 업로드가 이루어졌다. ‘달아실라디오’는 1주일 3편의 프로그램으로 ‘행복섬표’는 녹음방송으로 2017년 7월부터 현재까지 60회 진행하였고 “음악창고 뮤즐” 생방송으로 2017년 7월부터 현재까지 65회 진행하였고 “톡톡투유”는 녹음방송으로 2018년 11월부터 현재까지 10회 진행하였다. ‘팟 캐스트 광주시민방송’은 2017년 1년 동안 13회 분량의 콘텐츠를 업로드 하여서 한 달 평균 1개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신세계 복합쇼핑몰’ ‘대선평집(공약살피기)’ ‘책소개’, ‘영화소개’, ‘도시공원일몰제’, ‘공동체를 외치다’, ‘어등산관광개발 문제점’, ‘바람개비 도서관장’, ‘정치개혁광주행동활동’, ‘광주제1시립병원사건’, ‘언론과업’, ‘광주여성영화제’, ‘청소년노동현장’, ‘탈핵이야기’였다. ‘봉다

리마을방송’은 정규편성은 없고 30여 편의 프로그램을 팟 캐스트에 업로드 하였고 10편을 youtube에 업로드 하였다. ‘이공TV’는 정규편성은 없고 비정기적으로 업로드 하여 유튜브 이공TV 채널을 통해, 2017년도 송정마을카페이공 이색체육대회(3편), 다짜고짜스피드퀴즈(2편), 2018년도 제작물로 송정시장 점포 홍보영상(3편), 송정리프리덤(뮤직비디오 1편), 부들남(단편영화 1편)등 총 10개의 프로그램을 업로드 하였다. ‘할매할범뉴스데스크’는 분기별 마을소식지 제작과 1년 2개의 마을영상을 제작하였다. ‘수완라디오 시그널’은 단발성 프로그램으로 좌담회 축제행사 무대행사 등을 진행하였고 마을신문인 ‘호동이네 이야기’는 월 1회 발행하였으며 마을매거진인 ‘동구아트매거진’은 총 2회 발간하였다.

4.3.5 주민참여 확대방안

마을미디어에서 주민들의 참여와 확대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마을미디어들이 주민참여와 확대에 대한 고민과 방안들을 찾고 있었지만 가시적인 결과를 보여주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각 마을미디어들은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민참여와 확대에 노력하는 모습이였다. 주민참여를 희망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마을미디어는 구체적으로 5개 매체였다.

“주민미디어에 주민들이 직접 느끼는 점이 있어 소통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라디오방송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가 가능하고 마을발전을 위해 좋은 점이라 봤죠.”(‘수완라디오 시그널’ 김**)

“마을 주민들이 참여를 위해 마을 주민들 스스로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이야기를 영상으로 제작하고 또 제작된 영상을 주민들과 함께 보면서 눈으로 보고 느끼며 점점 더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도록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할매할범뉴스데스크’ 송**)

“주민들이 이사 등으로 응원하는 문제가 어려웠죠~ 수가 늘어나지 않는 것이 어려움이라 할 수 있죠.”(‘팟캐스트 광주시민방송’ 임**)

“애초에 라디오 강의를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시작했죠.”(‘신창라디오 풍당’ 김**)

“참여기자단 등 한정해서 진행한 거라 지속가능성이 어려움~.”(‘동구아트매거진’ 유**)

또한 구체적으로 인력양성을 통해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자 하기도 하였다.

“인력양성교육이 이루어지는데 관심을 가지고 마을에서 유휴인력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광산마을라디오 팟빵’ 배**)

다음, 재미와 놀이를 통해서 확대하고자 했으며 콘텐츠

츠를 통한 주민확대를 도모하기도 하였다.

“처음부터 주민들이 놀고 떠돌고 하는 공간으로~ 아이들, 청년과 노인들이 모두 공유하게 하자고 생각을 했죠.”(‘달아실라디오’ 정**)

“교육, 영상상영 등으로 지역민과 알아가고 이후 제작과정에서 직접 참여하도록 독려하죠~.”(‘이공TV’ 이**)

“지역민을 위한 콘텐츠를 먼저 만들어서 지역민들을 포섭하려면 저희들만의 방송을 만들어서 지역민을 끌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봉다리마을방송’ 오**)

4.3.6 문제점과 애로사항

마을미디어 운영상의 문제점(애로사항)에 대해서 마을미디어 활동가들은 다양한 응답을 보였다.

4가지 문제점으로 정리되는데 첫 번째는 제도적문제로 보조금 제도의 경직성과 전과관리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였고 두 번째는 저변확대, 참여와 소통문제를 세 번째는 실비제공 문제와 재원마련의 애로점을 네 번째 공간 확보의 문제를 제시하였다.

“공모사업으로 진행, 사업비의 지출이 공모사업의 항목에 맞춰져 있어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활용되기 보다는 항목에 맞춰 진행되는 점이 있어 프로그램 제작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기도 합니다.”(‘봉다리마을방송’ 오**).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미디어 사업 자체를 좀 더 생산적으로 이끌어 가기에는 인력적인 면에서 많이 부족하며, 꾸준히 사업을 담당하고 이끌어 나갈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일 년 단위로 사업이 끊기게 되는 경우가 있어 지속성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할매할범뉴스데스크’ 송**)

“인터넷 앱 방송의 한계를 벗어나 주파수를 확보하려고 하고 준비하고 있으나 (중략) 주파수를 할당 받는 문제와 전과관리법과 방송법의 자본금의 문제 등이 있습니다.”(‘고려FM 나눔방송’ 이**)

두 번째, 저변확대와 참여소통문제에 대해서

“소통을 하고 알아가는 것인데 광주시민센터에서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것이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관심이 있는 것 직접 연관되어 있는 문제를 찾기가 쉽지 않죠~”(‘팻캐스트 광주시민방송’ 임**)

“지속적인 미디어 제작을 위한 재원 마련이 어렵고~ 공모사업으로 교육비에 집중되어 제작이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고 제작물에 비해 노출빈도나 홍보가 부족하고 조취수가 낮은 점~.”(‘이공TV’ 이**).

“홍보부족으로 주민 참여가 부족한 점이 어려운 점이죠~.”(‘수완라디오 시그널’ 김**)

세 번째, 실비제공 문제와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마을미디어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많은데, 교통비 등도 없기 때문에 인적 구성이 되지 않는 것이 어렵죠”(‘광산마을라

디오 팻빵’ 배**)

“회원들의 봉사과 재능기부의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어 상주인력에 대한 유지비용 등이 문제죠”(‘달아실라디오’ 정**)

“재원마련의 어려움이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호동이네 이야기’, 박**)

네 번째, 공간확보의 문제에 대해서는

“공간확보와 비용 문제가 있었죠~ 활동을 하면서 사비를 들여서 해야 하고 마을에 대한 인식도 부족했죠~.”(‘신창라디오 풍당’, 김**)로 지적하였다.

4.4 연구문제3: 마을미디어 발전을 위한 마을미디어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에 대한 분석

마을미디어 활성화 방안에 대해 첫째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행정적 지원과 정책적 지원을 제시하였다.

“행정의 관심이 정책적으로 요청되죠~ 공모사업의 형태로는 자산형성이 어렵기에 예산 지원 정책이 필요하죠~.”(‘봉다리마을방송’ 오**)

“마을 공동체 미디어를 통해 잊혀져가는 마을 공동체 문화를 남기고 알릴 수 있다. 수익이 되지 않고 창업을 하기에는 공익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꾸준히 이어 나가기 힘든 분야이기도 하며, 하지만 점점 더 사라져가는 마을 공동체에 대한 가치와 필요성을 고려했을 때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할매할범뉴스데스크’, 송**)

“정책적으로 비용에 대한 재정지원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죠~.”(‘달아실라디오’, 정**)

“정책적인 관심과 재정지원이 가장 필요하고~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주민의식이 필요합니다.”(‘수완라디오 시그널’, 김**)

두 번째는 조례의 제정과 같은 제도적 지원과 예산지원의 문제를 제시하였다.

“마을미디어지원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미디어 지원 조례가 필요 하며 마을공동체의 소통의 채널로서 이해해서 마을마다 마을미디어가 있어야 한다. 옆 동네 소식을 전해들을 수 있는 소통의 참여와 그래서 광주지역 95개동 마을미디어축제 등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광산마을라디오’, 배**).

“예산지원으로 지속가능한 마을미디어를 위해 강사비, 교육비 외 제작비나 운영비, 인건비 지원이 필요~ 마을마다 제작된 미디어제작물을 한 데 모을 수 있는 플랫폼, 온오프라인, 필요하고~ 마을별 소규모 마을미디어센터를 설립하여 컨설팅, 공간사용, 장비사용 등으로~. 저작권 관련 조례 마련하여 비영리 목적의 마을미디어 제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례 필요 합니다.”(‘이공 TV’, 이**)

세 번째는 교육 활성화에 대한 문제이다.
 “제작에 대한 교육과정이 정례화 되는 것이 정책적으로 필요하고 기술이나 운영을 유지 할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죠~.”(‘팟 캐스트 광주시민방송’, 임**)

5. 결론 및 제언

마을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공동체 활동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마을공동체 소통과 정보공유의 채널로서의 마을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행정적·정책적 차원의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마을미디어 활동가들의 조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현재의 마을미디어 활동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정책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마을미디어 활동이 정착할 수 있도록 마을미디어에 대한 인큐베이터와 같은 기능이 요구되고 있다. 마을복원이나 공동체 활성화사업에서 마을미디어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공간의 문제도 지원이 필요하며, 마을미디어공모사업의 경우에도 마을미디어의 정착을 위하여 마을미디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마을미디어 활동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요청되고 있는데 이는 마을미디어지원조례의 제정으로 마을미디어 활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다. 마을미디어지원조례를 통해서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실비나 교통비, 취재비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안정적으로 마을미디어 활동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마을미디어 활동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재정적인 부분의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도 예산의 항목을 실질적으로 편성하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마을미디어 활동가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미디어이해와 제작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의 접근이 필요하다. 언론과 민주주의는 밀접한 관계가 있듯이 지방자치와 미디어가 접촉하는 기초출발로서 마을미디어를 인식하고 지방자치와 미디어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네 번째, 일반주민들이 미디어에 대해 이해하고 접근하기 위한 시청자미디어센터의 활용 등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마을미디어의 활동을 살펴본 결과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활용하는 빈도는 낮은 상태였다. 또한 미디어를 통해 소통할 수 있는 교육과정

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미디어활동가가 지적하였듯이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교육과정이 정례화 될 필요가 있다. 대부분 짧은 자체 교육으로 시작하게 되는 이들 마을미디어 활동에 대한 역량을 강화 시켜주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종합적으로 행정적·정책적 측면에서의 마을미디어활성화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법적·제도적인 문제와 참여활동가들의 인식과 마을 활동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재원마련에 대한 문제와 활동가들의 제작실비의 제공 문제와 재능기부의 문제 등을 심도 있게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SNS 등과 같은 융복합 스마트 미디어 계열에 대한 확장과 연구·분석이 요구된다.

REFERENCES

- [1] Y. T. Yoon. (2005). A Study on the Connotation and Ideology of the Concept 'Civic Media'.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5(2), 308-341.
- [2] J. S. Kang. (2017). The Study on Methodology and Flow of Discourses of Community Media : Focusing on the Meta-analysis of Topics, Methods, and Issues of Academic Journal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81, 9-39.
- [3] H. R. Lee & H. Y. Kim. (2017). Exploratory Research about Maeul Community Media Practice : Grounded Theory Based Analysis about Seoul Community Media Practice.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81, 75-121.
- [4] K. Howley. (2010). *Understanding community media*. Thousand Oaks, CA: Sa.
- [5] Y. G. Chae, Y. C. Kim, Y. M. Baek, Y. R. Kim & E. J. Kim. (2016). Maeul Community Media and the Transformation of Community Public Sphere in Seoul. *Communication Theories*, 12(2), 4-46.
- [6] Y. R. Kim, Y. C. Kim, Y. G. Chae, Y. M. Baek & E. J. Kim. (2017). Community Should Be Invented : Focusing on Maeul Media in Seoul.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81, 40-74.
- [7] J. S. Kang & E. B. Lee. (2013). A Study on Mimesis Practice and Playfulness of Community Radio DJ. *Studies of Broadcasting Culture*, 25(2), 37-66.
- [8] L. Tabing. (2002). *How to do community radio*. New Delhi: UNESCO.
- [9] J. S. Kang & Y. S. So. (2016). A Case Study on Multitude Practice of Dongjak FM : Focus on the Multitude Theory by Negri, Hardt and Virno.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60(5), 292-318.

- [10] M. J. Ban & Y. C. Kim. (2016). Community Radio's Interaction with Local Community Residents - A Field Report on Mapo FM's Case.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79-115.
- [11] Y. B. Jung. (2017). An Exploratory Study on the Media Experience of Village Community Media Producers : Focusing on the Production, Tasks and Policy Implications of Community Media in Jeju.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81, 153-186.
- [12] J. Ahn & Y. G. Chae. (2015). Community Media Practice by Married Immigrant Women and Empowerment.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29(6), 94-136.
- [13] J. S. Kang & E. B. Lee. (2014). A Study on Multitude Practice and Cultural Political Meaning of <Seoul Maeul Media> : Focus on the Multitude Concept by Negri and Hardt. *Broadcasting & Communication* 15(3), 143-185.
- [14] Y. G. Chae. (2017). Critical Understanding of Participation and Political Culture of Community Media in Seoul. *Korea, Media & Society*, 25(1), 141-194.
- [15] S. Y. Jang & Y. G. Chae. (2016). A Case Study of The Participant Network of Community Media in Seoul : Mapo FM Community Media.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6(5), 720-731.

김 덕 모(Dug-Mo Kim)

[경력]



- 1997년 2월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 박사과정 졸업(정치학 박사)
- 1993년 3월 ~ 1994년 3월 : 미국 클리블랜드대학교 방문연구원
- 2014년 9월 ~ 2015년 8월 : 미국 아이오와대학교 방문교수
- 2009년 9월 ~ 2012년 8월 :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 2016년 5월 ~ 2018년 4월 :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부회장
- 2007년 11월 ~ 2010년 8월 : 한국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 1998년 3월 ~ 현재 : 호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매스컴, 지역언론, 저널리즘
- E-Mail : kdmprof@hanmail.net

강 철 수(Chul-Soo Kang)

[경력]



- 2003년 2월 : 전남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과정졸업(정치학박사)
- 2005년 7월 : 전라남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
- 2006년 5월 : 광주광역시남구선거방송토론위원
- 2007년 ~ 2011년 : (사)광주전남민언론 공동대표
- 1996년 3월 ~ 현재 : 고구려대학교 교수,
- 2018년 12월 ~ 현재 : 광주전남언론학회 회장
- 관심분야 : 정책결정, 복지교육, 매스미디어
- E-Mail : cskang@kgrc.ac.kr